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12주 】

인도 1부 : 김재홍 목사  
2부 : 이재훈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 ▲ 경배의 찬송 ..... 35. 큰 영화로신 주 ..... 다 함께
-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차분히 삶을 돌아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우리의 습관적 신앙을 돌아볼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거저 주어진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 찬바람이 우리 몸을 움츠러들게 할지라도 마음이 넉넉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하나하나의 깨달음 때문입니다.

주님, 이 소중한 계절,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잇대어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 일꾼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때로는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터전을 일구어 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 수 1:9 ..... 인도자
- ▲ 교 독 문 ..... 14. 시편 24편 ..... 다 함께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 광권희 장로
- 2부 응 답 송 ..... 찬양대
- 2부 찬 양 ..... 440.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 다 함께
- ▲ 성경봉독 ..... 눅 13:18-21 ... 1부: 인도자/2부: 이은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독자  
다 함께

찬 양 ..... I. 내 삶의 이유라 ..... 마중물찬양대  
II. 그래도 ..... 청과찬양대

말 씬 .....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 함께

2부 찬 양 ..... 210. 시온성과 같은 교회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  
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 크기는 중요치 않습니다.  
작은 몸짓, 때로는 의미 없는 몸짓 하나가 하나님 마음을 대변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길을 가되 마땅히 심  
어야 할 씨앗을 심으며 사십시오.

다 함 계 : 아멘. 무심코 뿌린 씨앗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깨어 있는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  
참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여 주인의 기쁨에 동참했던 종  
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며 만나는 모든 이를 정성스  
레 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총회

낮집회 / 강의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이재훈 목사

## 수련과 수행

수행修行이라는 말을 불가佛家 쪽에서 많이 쓰는지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어색한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도修道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내용은 크게 다를 바 없다. 결국 자기 한 몸 닦자는 얘기다.

다만, 수도라고 하면 나와 동떨어진 무슨 도道を 닦는다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수행이란 말을 더 자주 쓴다. 행行은 행실이다. 내가 생각으로 말로 몸으로 하는 모든 ‘짓’이 행이다. 그것을 닦고 닦아서 본디 맑고 깨끗한 성품이 (하느님이 지으신 그대로) 드러나게 하자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수행이 없는 종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특히 개신교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한 마디 말에 갇혀서 구도자의 알맹이인 수행을 가벼이 여기는 그릇된 풍조가 있는 듯하다. 안 된 일이다.

잠깐, 수행과 수련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 수련은 일정기간에 마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수련기修練期라는 말도 있지만, 수행은 한 평생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행기修行期라는 말은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검술을 배운다 할 경우에 도장道場에 가서 검술을 익히는 것을 수련이라고 한다면 모든 수련을 마친 뒤에도 검객으로서 수행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수련은 수행을 위한 준비라고 볼 수도 있겠다. 수련이 칼 쓰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라면 수행은 그 기술을 부리는 사람을 닦아나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도 물론 수련과 수행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도

생각만 같아서는 금방 될 수 있을 듯하지만 막상 하려고 들면 사방이 절벽처럼 막히게 마련이요, 어려운 사람 돕는 일도 생각으로는 못할 게 없을 것 같지만 몸이 남의 몸처럼 말을 듣지 않는 데야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다못해도 끼로 장작 패는 일도 연습이 필요한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어찌 연습 없이 가능하겠는가?

되풀이해서 몸에 익히는 것이 연습이다. 거둬드는 실패, 그것을 연습의 과정이라고 봐도 좋다. 그만큼 실패는 소중한 것이다. 오죽하면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겠는가? 신앙생활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넘어지는 경험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수련은 집중적인 반복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가끔 교회에서 수련회라는 이름 아래 그냥 모여서 떠들고 노는 것을 보는데 무슨 놈의 수련을 그 모양으로 하는지 모를 일이다. … 우선 지도자라는 인간들부터 수행하는 삶을 진실하게 살지 않는 데서 오는 결과다. 일단 목사만 되면 이제 배울 것 다 배웠다는 듯이, 책 읽고 명상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스승 찾아 길 떠나는, 이런 일 모두 때려치우고는 그저 쥐꼬리만큼 알고 있는(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드니, 그런 것들이 지도하는 모임에서 무슨 쓸 만한 그릇이 만들어지겠는가? …

바울로는 죽는 순간까지 수행인이었다. 그래서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고 고백했던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리하여 평생토록 수행인의 자세를 잃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

수행하는 사람은 일용동정 日用動靜의 모든 것이 자기를 닮는 일에 연관되어야 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나 시방 그대가 이 글을 읽고 계신 것이나, 그게 모두 자기 수행의 한 부분이 아닐진대 무슨 맹랑한 헛수작이겠는가.

- 이현주, 「그러므로, 저는 당신입니다」(함께읽는책) 중에서

## 빈방

최영숙

언젠가는 빈방 하나를 갖고 싶다  
아무것도 들이지 않은 빈방  
거울도  
책상도  
이불도,  
아무것도 없는  
빈방에  
비로소 몸 하나를 내려놓으리라  
방문 밖으로 먼 산이 보이는 곳  
뒤꼍으로는 때때로  
비바람 지나가 불러주는,  
빈방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으니  
소리 없는 소리로  
평생 가득 찼던 귀를 비우리라  
내내 무거웠던 가슴을 풀어주리라  
너무 이르거나 늦지 않은 때  
빈방 하나를 가져서  
말로써 진 빚을 다 갚을 때  
빈방은  
비로소 빈방이 될 것이지만, 살면서  
비우기가  
채우기보다 어려운 것  
마음속 빈방  
언제나 가득 찼으니  
아무것도 들이지 않은 빈방 갖는 날,  
언덕에 등 떠순 작은 봉분 하나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수정 국지연 권순 권혁순 박혜경b 김명숙 김명희b 김시영 김영미 김영읍 김예준  
 김재홍 최희영 김정수 정자현 김종락 박영신 김철수 유영남 김충실 조아라 김태정  
 김현주 김혜라 김혜영 김희진 박홍재 남명진 김애정 문복순 박석희 조항미 박재영  
 이현정 박준민 최광희 박지혜 박지혜 방신혁 방종미 배강우 백성래 백원선 변재민  
 이소혜 설규범 송인선 신동완 신문희 신영옥 오은영 원용일 최현선 유명호 지성진  
 윤성종 김윤정 이수자 이윤범 나지선 이재우 배이화 이정우 장윤지 전성숙 정성식  
 정영례 정종삼 정효진 최소라 고인성 최은미 최형균 강경화 추광미 하상애 한나영  
 허호범 박성실 현진

### 감사헌금

강석남 강혜린 고인호 곽 인 김나름 김명희 김영윤 김우진 김옥곤 김인석 이선화  
 김일재 김진혁 나영란 노신후 박준민 최강희 박지선 박지영 변종복 신기호 신형선  
 안길상 이형숙 오복순 오이새 최은별 유명호 지성진 유청빈 윤선호 이광석 이정환  
 허은경 이주호(청주 좋은교회) 이태석 임광호 장연수 채일석 하수민 함정희 황현성  
 이오복 무명6

### 생일감사헌금

임승동 전성숙

### 녹색꿈헌금

구혜린 김영호 방신혁 서병원 박성희 전성숙 최가윤 함정희 무명1

##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모임	13:30	지하 다목적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 섬)
2청년부예배	13:30	실			
		청년회실			

## 교회소식

1. 선교회 총회 : 오늘 오후 모임은 선교회 총회입니다. 선교회별로 모여 일 년 사업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임원회 보고 : 다음 주일에 분기임원회가 열립니다. 각 부서는 보고서를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환경세미나 : 다음 주일(24일) 오후 1:30 본예배당에서 <보고 듣는 환경 이야기 - 플라스틱 바다> 라는 주제로 환경세미나가 열립니다.  
 -영화 : 플라스틱 바다(A Plastic Ocean)  
 -오르간 연주 : 고래를 위하여
4. 속회 참여 신청 : 내년도에 속회 모임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몽골 은총의 숲 10주년 기념 세미나 : 이번 주 금요일(22일) 저녁 6시 교회 세미나실에서 '몽골 은총의 숲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신앙실천 : 계절을 붙잡지 못하듯, 떠나보내야 할 마음이 있는지 분별해 보세요.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갈 2:5-11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홍
		2부 김기석	안종일	이왕준	이재훈
11월	1부 영접위원	김종락	현금위원	박영신	
	2부 영접위원	장원호 권혁순	허신열 유경순	이은주 강금연	
	2부 현금위원	조문규 서정순			
식당봉사	오늘	김현주 김문주 홍복선 허정윤 박효선 전정현 이재삼 한성근			
	다음주	최승주 김인숙 이소선 김세영 이순정 권 산 조호진 송정근			
설거지봉사	4남선교회 (오늘)	2여선교회 (다음주)	커피봉사	6여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